

熱可塑性 NP特許紛爭

—美·日企業間 5월에 積極化—

美國의 大電機메이커인 GE(제네럴·일렉트릭)와 日本의 旭다우는 熱可塑性엔지니어링·플라스틱市場을 에워싸고 特許紛爭이 展開되었다.

GE쪽은 그 合作先인 日本의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L)이 폴리페니렌옥사이드(PPO)를 變成한 樹脂노릴을 日本을 비롯한 東南亞市場에 거의 獨占供給하고 있으나 旭다우가 同品質의 「자이론」을 5월頃부터 發表하려는데에서 發端된 것이다.

이를 探知한 EPL은 旭다우의 자이론의 製造方法이 GE의 基本特許에 抵觸된다고 表明한데 대하여旭다우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反論하고 있다.

이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成形材料이며 金屬이나 天然素材의 나무에 代替되는 工業用材料이다. 汎用플라스틱의 需給上 附加價値가 높은 분야에 속하는 이 재료의 企業化는 20餘年前이며 物性이나 安全性에 강하여 그 用途가 廣範圍한 까닭에 數年前부터 市場의 伸長率이 큰 商品이다.

이 NP분야에서 큰 實績을 갖고 있는 것이 GE로서 1967년에 熱可塑性 NP의 PPO變成樹脂인 노릴을 개발하여 日本 및 東南亞市場에 공급하다가 長瀬産業과 合流하므로써 EPL을 設立한 후 그 當時 年間的 600t의 消費量을 15,000t으로 擴大시켰다.

이때까지 노릴과 同質의 것은 GE의 基本특허가 있으며 各 企業들이 活用하려 했으나 技術성이 難解하여 參觀하지 못했다. 이에 旭다우가 企業화에 일단

成就하여 스틸렌그라프트화 폴리페니렌·에틸樹脂인 자이론의 제조플랜트를 製作하였다. 年産 10,000t의 施設容량을 5월부터 稼動할 예정이다.

이 자이론은 電氣絶緣性, 難燃性, 耐藥品性, 耐衝擊性 등 NP로서 要求되는 모든 物性を 지니고 있을 뿐더러 熱安全性과 流動성이 좋고 汎用플랜트 및 成形성이 있어 보다 새로운 재료라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같은 旭다우의 企業화에 대하여 EPL 쪽은 自社は 라이선시의 處地이며 직접 特許問題에 關與 할 수는 없다고 前提한 다음 旭다우의 자이론은 化學結合된 것을 볼때 같은 내용의 것이며 이는 GE의 基本특허에 完全히 抵觸되므로 5월에 나오게 될 產品을 正式分析하여 GE로서의 基本方針을 確定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旭다우는 GE의 基本특허부분에 대해서는 慎重히 檢討하여 企業화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면 기술문제가 아니라 法律論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3년전부터 이 문제를 充分히 검토하였다는 반론이다.

더우기 5월부터 시판에 앞서 成形加工業者들과 合力하여 試作에 들어갔으며 需要者들은 이로써 이제까지의 獨占商品에 대한 競合企業이 出現한 것을 歡迎할 것이고 EPL쪽의 市場에 대하여도 분석이 끝났다고 강경한 태도를 表明하고 있다(近着 外誌에서)

스위스對 日 放電加工機特許紛爭

—逆警告에서 正式提訴靚—

本誌의 지난 2月號(國際動向欄)에 紹介한 바 있는 放電加工의 組合加工技術에 대한 스위스對 日本企業들의 特許紛爭은 被訴된 日企業이 다시 逆襲하고 나섰다.

當初 스위스의 綜合電機企業인 설미가 日本의 자팍스 등 數個企業을 相對로 自社の 日本特許를 侵害

하고 있다고 警告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자팍스가 설미를 상대로 와이어커트放電加工機 등 7件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逆襲警告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兩社가 경고를 지나서 正式特許紛爭으로 發展하게 되었으며 두 기업은 이미 5年前부터 이 문제 이외에도 特許紛爭中이다.